

『개역개정(신약)』 번역어의 일관성 문제에 대한 소고 — 인간론적 용어와 성령을 나타내는 ‘pneuma’의 번역의 경우를 중심으로 —

오성중*

1. 서론: 문제 제기

『개역개정(신약)』¹⁾의 뿌리는 1906년/1911년에 나온 첫 공인본 『신약전서』²⁾이고 후자의 번역에 영향을 준 것은 1887년에 나온 존 로스(John Ross) 역인 『예수성교전서』였다. 이 로스역 신약은 중국어 『文理譯』(Delegates' Version)이 저본(底本)이라고 할 정도로 한문 성경의 영향이 컸고 『신약전서』 역시 한문 성경의 영향을 받았다.³⁾ 그래서 1911년까지의 국역 성경은 우리말 표현을 중시하면서도 ‘중역(重譯)’의 성격이 있는 면이 있다고 지적되기도 한다.⁴⁾

- * Tübingen University에서 신약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음. 전 칼빈대 교수. ohsj1@hanmail.net.
- 1) 본 논문에서 사용된 성경번역본의 약어는 다음과 같다: 『개역개정』 = 『성경전서 개역개정판』(1998), 『표준』 = 『성경전서 표준새번역』(1993), RSV = Revised Standard Version (1952), NKJ = New King James Version (1982), NRS = New Revised Standard Version (1989), ESV = English Standard Version (2001), NIV = New International Version (1984), NAB = The New American Bible (1970), LUT = Revidierte Lutherbibel (1984), EIN = Einheitsübersetzung (2016), JPS TNK = PS Hebrew-English TANAKH (2003). 또 아래에서 『개역개정』은 『개역개정(신약)』을 가리키는 것으로 한다.
 - 2) 이것은 이미 1900년에 출판된 『신약전서』(시험역본)의 개정판인데 비교해보면 번역 형태는 거의 같다.
 - 3) 1882년에 본국에 로스(John Ross)가 보낸 선교 보고에 따르면, 로스 등의 번역 방법과 과정은 먼저 조력자들인 한국인 번역자들이 중국어 『文理譯』을 한글로 초역한 것을 로스와 매킨타이어(John Macintyre)가 그리스어 원문과 영역 성경을 대조하여 수정한 후, 성구사전과 주석을 참조하여 어휘의 통일을 기하되 축자적 번역보다는 의미와 조선식 관용어구를 채택하는 식의 번역을 하였다. 이덕주, “초기 한글성서 번역에 관한 연구,” 『한글성서와 겨레문화』, 그리스도교와 겨레문화연구회 편(서울: 기독교문사, 1985), 421-423.
 - 4) 민영진, 『국역성서연구』(서울: 성광문화사, 1984), 131-133; 히로 다카시(廣剛), “개화기 한

‘구역(舊譯)’인 『신약전서』는 표준말로 고치는 작업을 통해 1938년에 『신약전서 개역』의 이름으로 새롭게 출판되었고, 이어 한글맞춤법통일안의 새 철자법에 따른 『성경전서 개역한글판』이 1952년에 나왔다. 다시 후자의 수정판인 1961년의 『성경전서 개역한글판』을 거쳐 1998년에 대폭적인 개정판 『성경전서 개역개정판』이 출판되었는데, 『성경전서 개역한글판』의 문체를 유지하되 어려운 한자어 표현을 쉬운 현대 말로 고쳤고 국어 맞춤법과 문법 등을 따라 새롭게 고치는 개정을 하여 계속 강단에서 사용되는 성경이 되게 하였다.⁵⁾

교과별로 신학적 전통이 사뭇 다르면서도 한국 교회가 초창기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100년이 넘게 강단용 성경을 하나로 통일시켜 사용해 온 전통은 매우 다행스럽고 귀한 일이라고 할 것이다. 오늘날 대부분의 한국 교회는 공예배시 설교 본문을 일반적으로 『개역개정』에서 읽고 있다. 교인들이 개인적으로 읽는 성경 역시 대부분 『개역개정』이다. 구약학자들이나 신약학자들마저도, 일부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개역개정』의 본문을 선호한다. 물론 전문적인 학자들은 성경 본문을 연구할 때 흔히 원문도 동시에 비교해 보고 관련 본문에 대한 주석가들의 해석들도 참조할 것이다. 반면에 한국 교회의 일반 목회자들은 평소에 성경을 읽을 때, 그리고 특히 무엇보다도 설교 준비를 할 때에도, 단지 『개역개정』 성경전서를 사용하는 데서 그친다. 원문을 대조하고 주석들을 참조하면서 성경을 연구하고 설교 준비하는 목회자들은 매우 드문 것이 현실이다.

실제 엄격하게 형식적 등가(‘formal equivalence’)와 단어 대 단어 상응(‘word-for-word correspondence’)을 추구하는 성경 번역본은 ‘Interlinear Bible Translations’처럼 번역될 경우 내용의 전달이 어렵게 된다. 반대로 역동적 내지는 기능적 동등성(‘dynamic or functional equivalence’)을 일반적으로 중시하여 번역할 때 성경 연구자들과 목회자들에게 성경 연구용으로는 약점이 있는 번역 성경이 될 수 있다. 물론 문자적 번역을 강조한 번역이나

국어 성서의 번역어 연구—「마가복음」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2005), 38. 물론 초기 국역 성경들이 중국어성경이나 영역 성경을 노예적 정신으로 중역하였다고 폄하한다면 전혀 잘못된 평가가 되겠다. 로스와 매킨타이어를 비롯하여 ‘성경번역학회’에 속했던 선교사들은 원어와 관련 주석들을 부지런히 참고하여 창의적인, 훌륭한 번역을 하였다고 인정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로스와 아펜젤러(H. G. Appenzeller), 게일(J. S. Gale) 등 초기 선교사들은 하나님 명칭을, 중국어 명칭인 ‘神’/‘上帝’/‘天主’를 따라 ‘신’/‘상대’/‘턴쥬’로 번역하는 대신에, ‘하느님’/‘하나님’으로 표기하기로 탁월한 선택을 했던 것이다. 참조, 옥성득, “초기 한글성경 번역에 나타난 주요 논쟁 연구(1877-1939)”, 석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1993), 22-42.

5) 참조, 민영진, 『개역개정판 이렇게 달라졌다』 (서울: 대한성서공회, 2003).

내용적 전달과 이해를 강조한 번역 모두가 각기 장단점이 있으며, 그래서 모두가 필요하고 상보적인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강단용 및 연구용 성경을 위해서는, 리랜드 라이큰(Leland Ryken)이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주장한 것처럼, 성경 본문의 번역이 원문의 언어와 표현과 관습을 본질적으로 되살리면서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우 현대어적 어감에 생소하지 않도록 고려하여 이뤄진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⁶⁾

교리적 및 신학적 관심을 가지고 국역 본문을 가지고 연구할 때, ‘기능적 동등성’의 번역 원리를 적극적으로 추구한 『공동번역 성서』나 『현대인의 성경』 등과 비교할 때, 『개역개정』은 원문을 보지 않으면서도 원문을 참조하는 효과를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개역개정』은 원문을 읽지 못하는 목회자들과 일반 성도들에게 상대적으로 더 큰 유익을 줄 수 있는 면이 있다고 보겠다. 같은 번역 원리와 정신을 따라 번역된 영역 성경인 RSV(1957)나 NKJ(1983), NRS(1989), ESV(2001)⁷⁾ 등을 옆에 두고 비교해 가면서 『개역개정』을 읽을 때, 그래서 원문을 읽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성경 연구에 나름대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개역개정』에는 좀 더 정확한 단어와 표현으로 번역하지 못했을 때 교리적인 함의가 결부된 문제가 구약보다 신약의 경우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단순히 문학적이거나 문법적인 문제가 아닌, 교리적이고 신학적인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라면 가능한 한 시급히 개선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개역개정』을 낼 때 ‘『성경전서 개역한글판』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꼭 필요한 부분만 개정한다는 원칙으로 개정’하였는데, 같은 원칙을 가지고 좀 더 완전한 개역 성경으로 개선하는 작업을 할 기회가 있을 때 참고할 만한 약간의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본 논고를 쓰고자 한 것이다.

아래에서 『개역개정』 중 인간론적인 용어들과 ‘성령’을 가리키는 πνεῦμα에 대한 번역어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경우들을 지적하고 최선의 번역어를 제안하겠다. 관계된 수십 구절을 다뤄야 하는데, 지면 관계상 모든 구절들에 대한 주석적 취급은 할 수 없다. 해석에 있어서 논란이 클 수 있는 몇 구절은 논의와 제안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겠다. 우리가 다루려 하는 구절

6) Leland Ryken, *Understanding English Bible Translation: The Case for an Essentially Literal Approach* (Wheaton: Crossway, 2009), 17-33.

7) NRS와 ESV 두 영역 성경의 다음의 각 서문을 참조 바람: ‘(NRS의) 독자에게: (NRS)는 여전히 **본질적으로 문자적인 번역**으로 남아 있다. 알기 쉽게 풀어 번역한 경우는 단지 드물게 이뤄졌는데, 그때는 주로 영어에 없는 표현을 대신 보충하기 위한 범위에서 그러하였다.’; ‘ESV 서문: 그래서 **본질적으로 문자적인 번역**으로서의 ESV는 성경 원문의 의미의 가능한 모든 뉘앙스가 우리의 언어 속에 남아 있도록 하는 것을 추구한다. 그럼으로써 우리의 번역은 깊이 있는 성경 연구에 이상적으로 적합하게 된 것이다.’

들은 대부분 일반적으로 주석가들이 해석을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범위 안에서 선택된 경우들이다. 그러나 인간론적인 용어들에 대한 번역 문제는 결국 사전적 단어의 의미에 관계된 것이므로 먼저 언어학자이면서 주석가들인 전문가들의 권위 있는 선행 연구들을 소개하고 종합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다.

같은 단어에 대한 번역어의 일관성 문제를 다루는 것이므로, 참고로 『개역개정』과 비슷한 문자적 번역 원리를 따라 번역한 영역 성경 NRS와 ESV와 독일어 성경 LUT을 대조하도록 표에 상응하는 번역어들을 제시하겠다.⁸⁾ 또 참고로 『文理譯』의 상응하는 번역어들을 병행하여 제시하겠다. 특히 신약(과 구약)의 인간론적인 용어들에 대한 정확한 상응어가 부족한 한자 문화권의 언어상의 한계가 『文理譯』과 『개역개정』에서 공히 드러남을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이다. 『文理譯』에서 인간론적 용어들에 대한 번역어가 매우 다양하고 일관성이 결여된 채 나타나는 것이 특징인데, 『개역개정』에 나타나는 같은 특징에 대한 어떤 연관성을 증거해 주는 의미도 있을 것이다.

2. 일관성 있는 번역이 요청되는 인간론적 용어의 문제 번역어들

2.1. 인간론적 용어들의 어의론적 문제

신약 중 인간론적 용어에 속하는 그리스어 $\piνεϋμα$ 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영역 성경들은 거의 일률적으로 ‘spirit’로 번역하고 있으나, 『개역개정』에서는 매우 다양하게, 일관성 없게 번역하고 있다 — ‘영’, ‘심령’, ‘마음’, ‘중심’, ‘영혼’.⁹⁾ 상당한 이유가 없는데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¹⁰⁾ 또 하나의 인간론적 용어인 $νοϋς$ 는 신약에 24회¹¹⁾ 나오는데, 『개역

8) 물론 서양 번역 성경들의 번역어를 참고하는 이유는 그 예들을 무조건 따르자는 것이 아니요, 다만 성경 번역의 역사가 우리의 그것보다 훨씬 길고 또 언어적 및 주석적 연구 또한 역사가 오래이기 때문이다. 또 무엇보다도 가능한 한 문자적 번역을 추구하는 번역들에서 같은 단어가 얼마나 일관성 있게 번역되었는지를 비교하고자 함일 뿐이다.

9) 『표준』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런 점 때문에 『개역개정』의 문제 번역어를 지적하고 있어서 서양 번역본의 경우를 병행적으로 제시할 때, 『표준』의 경우는 고려하지 않기로 한다. 예를 들면, 『표준』은 $\piνεϋμα$ 를 여러 곳에서 ‘마음’(마 5:3; 14:38) 또는 ‘영혼’(행 7:59; 약 2:26)으로 번역하였다.

10) 그 이유는, 아래에서 근거를 제시하겠지만, 초기 국역 성경들이 『文理譯』의 번역어를 참조했던 데 기인한 것이며 지금까지 개정을 거듭하면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 세심하게 검토하는 노력이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11) 본 논문에서의 신약 원어의 통계는 다음 책의 통계를 따른다: Kurt Aland, hrsg., *Vollständige*

개정』에서는 대부분 ‘마음’으로 번역했다(20회). NRS는 “understanding”과 “thinking”으로 번역한 세 곳을 빼고는 모두 “mind”로 번역하였다. 본래 신약에서 우리말의 ‘마음’과 영어의 ‘heart’에 대한 상용어가 있는데 곧 157회 나오는 καρδιά이다. 물론 『개역개정』과 영역 성경들은 대부분 ‘마음’과 ‘heart’로 번역하였다. 그런데 『개역개정』에서는 καρδιά만이 아니라, πνεῦμα와 ψυχή, νοῦς, νόημα도 똑같이 ‘마음’이라고 번역한 경우가 아주 많다. 『개역개정』에 ‘마음’이라고 번역된 경우는 모두 239회나 된다. καρδιά 외에 다른 그리스어 단어들을 ‘마음’이라고 번역한 사례가 80여 회나 된다는 말이 된다.

반면에 영역 성경들의 경우 번역어로서 ‘spirit’와 ‘heart’, ‘soul’, ‘mind’ 사이에 상호 혼용되는 예는 매우 드물게 나타날 뿐이다.¹²⁾ 이 단어들의 상용어인 그리스어와 히브리어는 각기 πνεῦμα/rúah, καρδιά/lēb, ψυχή/nepheš이다. 영어에서와 마찬가지로, 성경 중에 나타나는 그리스어와 히브리어의 이들 인간론적인 용어들도 상호간에 뚜렷하고 고유한 어의적(語義的) 차이가 있다는 사실이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¹³⁾ 구약에 389회 나오는 히브리어 명사 rūah가 그리스어 번역 성경인 70인역(LXX)에서 ψυχή로 번역된 예는 2회(창 41:8, 출 35:21) 뿐이다. 또 755회 나오는 히브리어 nepheš가 LXX에서 그리스어 πνεῦμα로 번역된 예는 전무하다.¹⁴⁾

한편 국내 교계에서는 특히 교의학자들의 영향으로 인간의 구성에 대한 ‘이분설’(dichotomy) 입장의 이해가 널리 퍼져 있다. 그들은 신구약성경에 나오는 두 인간론적 용어들 πνεῦμα/rúah와 ψυχή/nepheš가 상호 교환 가능한

Konkordanz zum griechischen Neuen Testament, Bd. II: Spezialübersichten (Berlin: Walter de Gruyter, 1978).

- 12) NRS의 경우를 예로 들자면, πνεῦμα가 ‘heart’나 ‘soul’로 번역되거나(『개정개역』에선 ‘마음’/‘영혼’으로 번역된 예가 많음), νοῦς/νόημα나 ψυχή가 ‘heart’로 번역된 예는 없다(『개정개역』에선 ‘마음’으로 번역된 예가 많음). 단, NRS에서 καρδιά를 거의 항상 ‘heart’로 번역했으나, 네 곳에서 예외적으로 ‘mind(s)’로 번역하였다(롬 1:21; 고전 7:37ab; 고후 7:2).
- 13) 참조, F. Baumgärtel & E. Schweizer, “πνεῦμα κτλ.,” Gerhard Kittel, hrsg., *ThWNT* 6 (Stuttgart: W. Kohlhammer Verlag, 1959), 357-366, 387-453; E. Jacob & E. Schweizer, “ψυχή κτλ.,” Gerhard Kittel, hrsg., *ThWNT* 9 (Stuttgart: W. Kohlhammer Verlag), 1979., 614-629, 635-657; W. D. Stacey, *The Pauline View of Man* (London: Macmillan, 1956); H. W. Wolff, *Anthropologie des Alten Testaments* (München: Chr. Kaiser, 1990); C. Westermann, “שָׁרֵיִת Seele,” E. Jenni, hrsg., *THAT* 2 (Zürich: Theologischer Verlag), 1976, 72-96; R. Albertz & C. Westermann, “רוּחַ Geist,” E. Jenni, hrsg., *THAT* 2 (Zürich: Theologischer Verlag, 1976), 726-753; 오성중, “Pneuma와 Psyche: 인간론적 용어에 대한 개념사적 및 주석적 연구,” 『한국복음주의 신약학연구』 4 (2005), 154-192.
- 14) E. Hatch and H. A. Redpath, ed., *A Concordance to the Septuagint*, Vol. II (Graz: Akademisches Druck- u. Verlagsanstalt, 1975), 1151-1153, 1486-1490.

단어들이라고 생각한다. 국내에서는 루이스 벌코프(Louis Berkhof)와 박형룡의 교의학 교과서의 영향으로 ‘몸’ 외에 ‘영’과 ‘혼’을 나누어 이해하는 ‘삼분설’(trichotomy)을 고대 그리스 철학의 이원론에서 기원한 것이라 보아 거의 이단시하는 경향마저 있다.¹⁵⁾

교의학자들은 흔히 “영과 혼과 몸”(참조, 살전 5:23)처럼 구별하여 말하는 것은 고대 그리스 철학의 이원론의 영향을 받은 삼분설적 인간관이라고 근거 없는 비판을 말한다.¹⁶⁾ 그리스 철학의 인간관에서는 πνεῦμα(spirit)에는 관심이 거의 없었고,¹⁷⁾ 오히려 인간 속의 가장 고상한 부분이며 신적인 성격을 지녔다고 본 νοῦς(mind)에 높은 관심이 있었다.¹⁸⁾ 영과 혼과 몸을 삼분설적으로 나누면서 영과 몸을 대립적으로 본 이원론적인 인간관과 세계관은 오히려 2세기 이후에 발달한 기독교 계통의 이단인 영지주의자들의 사변과 관계가 있다. 그들은 πνεῦμα보다는 오히려 ψυχή가 더 높은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았으며 흔히 νοῦς가 πνεῦμα의 자리에 들어서기도 하였다.¹⁹⁾ 이전 세대의 교의학자들에 비하여 신약학자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피조물이요 구원의 대상인 인간을, 영과 혼과 몸으로 분리될 수 있는 존재로서가 아니라, 전인적 존재의 여러 방식과 다양한 기능으로 이해하려는 경향이다.²⁰⁾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의학자들도 이분설이나 삼분설보다는 인간의 복합적 성격과 통합적 성격을 인정하여 일원론적

15) L. Berkhof, *Systematic Theology* (Grand Rapids: Eerdmans, 1976), 191-196; 박형룡, 『교의신학-인죄론』(한국기독교교육연구원, 1988), 49-57. 그러나 박형룡은 영과 혼을 두 가지의 실체로 보는 것을 반대하나 기능적인 면에서 구별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기도 하는데, 사실 많은 삼분설 입장에 있는 사람들도 동의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16) L. Berkhof, *Systematic Theology*, 191: ‘인간에 대한 삼분설적인 개념은 인간의 몸과 영의 상호관계를 물질적 우주와 신과의 상호관계에 유비하여 생각하였던 그리스 철학에 기원한 것이다.’

17) LSJM(1424)에서는 πνεῦμα 항목에서 ‘바람, 호흡’의 의미로 쓰인 경우의 인용문은 대거 예시하고 있으나 ‘(하나님의) 영’이나 ‘(인간의) 영’을 가리키는 경우의 인용문은 거의 LXX과 신약에서만 인용하고 있을 뿐이다. 신약에서의 인격적인 기능을 하는 ‘영’ 개념은 개념사적으로 볼 때 기본적으로 구약의 그것을 따르고 있음에 대한 명백한 증거이기도 하다.

18) 참조, J. Behm, “νοέω, κτλ.,” Gerhard Kittel, hrsg., *ThWNT* 5 (Stuttgart: W. Kohlhammer Verlag, 1961), 953; A. Dihle, “ψυχή κτλ.,” Gerhard Kittel, hrsg., *ThWNT* 9 (Stuttgart: W. Kohlhammer Verlag, 1979), 607-609, 612. 또 ‘영’과 ‘몸/육체’를 구별하는 성경의 관례(예: 막 14:38; 살전 5:23; 고전 5:3-5; 고후 7:1; 골 2:5; 약 2:26; 예외: 마 10:28)와 다르게, 그리스 철학에서는 ψυχή(soul)와 σώμα(body)를 구별하였다.

19) E. Schweizer, “πνεῦμα κτλ.,” Gerhard Kittel, hrsg., *ThWNT* 6 (Stuttgart: W. Kohlhammer Verlag, 1959), 393.

20) 예: J. K. Chamblin, “Psychology,” R. P. Martin et al., eds., *Dictionary of Paul and His Letters* (Downers Grove: IVP, 1993), 765-775, 765: ‘바울은 인간을 이성적, 정서적, 신체적 기능들이 완전하게 통합되어 있는 정신-신체의 결합체로 본다.’

인간 이해를 말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 같다.²¹⁾

그렇다고 하여 인간론적 용어들의 단어 상호간의 어의적 차이는 무시될 수 없고 그 용어들에 대한 신약신학적인, 특히 바울신학적인 의미는 적극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²²⁾ 바울에게 있어서 인간론적 용어들인 *πνεῦμα*와 *ψυχή*의 개념상 뉘앙스의 차이는 분명한데, 이에 대하여 래드(G. E. Ladd)는 다음과 같이 적절히 설명한 바 있다: “프쉬케와 프뉴마는 엄격하게 말해서 서로 교체될 수 없으며, 두 관점에서 본 인간의 내적인 생명을 지칭한다. 프뉴마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본 인간의 내적인 자아(自我)이고, 프쉬케는 살아 있는 존재로서의 인간, 그의 몸과 육의 관점에서 본 인간의 생명력이다.”²³⁾

바울에 따르면, 창녀와 합하는 자는 “한 몸”이 되며 주님과 합하는 자는 “한 영”이 되며(고전 6:16-17),²⁴⁾ 그래서 종말론적인 소망을 가진 온전하고 성별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몸과 영” 내지는 “온 영과 혼과 몸”을 거룩하게 보존해야 한다(고전 7:34; 살전 5:23). 바울은 음란죄를 지은 성도를 교회의 권위로 권징함으로써 “육신은 멀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함”(고전 5:1-5)에 대해서도 말한다.²⁵⁾ 바울에게 있어서 ‘몸과 (혼과) 영’이라는 표현이 전인적인 한 인격을 대표하는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으나, ‘몸과 (혼과) 영’이 각기 고유한 기능을 하는 점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²⁶⁾ 바울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는” 것이라(6:18)

21) 예: A. A. Hoekema, 『개혁주의 인간론』, 류호준 역 (서울: CLC, 1990), 337-374; M. Erickson, *Christian Theology* (Grand Rapids: Baker, 2002), 537-557.

22) R. Bultmann, *Theologie des Neuen Testaments* (Tübingen: Mohr, 1984), 192-226; G. E. Ladd, 『신약신학』, 신성종, 이한수 역(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2001), 573-596. 반대로 최근에 신약신학 교과서 중에 바울의 인간론적 용어들에 대한 취급을 전혀 생략하는 저자가 있기도 하다. 예: G. Strecker, *Theology of the Neuen Testament*, E. E. Boring, trans. (Berlin: de Gruyter, 2000).

23) G. E. Ladd, 『신약신학』, 576. 래드(G. E. Ladd)의 이 설명에 교의학자 후크마(『개혁주의 인간론』, 355)도 대체적인 ‘동의’를 표하였다. 래드와 비슷한 견해를 표시한 교의학자도 있다. 예: A. H. Strong, *Systematic Theology* (Philadelphia: Judson, 1979), 486.

24) A. C. Thiselton, *The First Epistle to the Corinthians* (Grand Rapids: Eerdmans, 2000), 466-470; G. D. Fee, *The First Epistle to the Corinthians* (Grand Rapids: Eerdmans, 2014), 286-288, 287: ‘바로 이어서 나오는 결론(6:19-20)의 빛에서 볼 때, 바울은 거의 확실하게 성령의 역사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것이며, 그 역사로써 ‘한 성령’을 통해 신자의 ‘영’이 그리스도와 떨어질 수 없도록 결합되었다.’

25) ‘몸/육신과 영’의 관계에 대한 바울의 인간론의 주제에 대하여 논할 수도 있겠으나, 우리의 논문에서 다룰 주제는 아니고, 여기서는 다만 인간론적 용어들에 대한 번역어 문제에 집중하고자 한다.

26) G. D. Fee, *The First and Second Letters to the Thessalonians* (Grand Rapids: Eerdmans, 2009), 226-231. 이 사실을 간과하지 못하는 주석가들도 있다. 예: H. Conzelmann, *Grundriss der*

고 가르쳐준다. 그래서 신자는 자기의 몸이 자기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지체”(6:15)요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성전”이므로 자기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6:15, 19-20)고 바울은 권면한다.²⁷⁾

바울을 따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πνεῦμα*로 말하기 때문에 자기의 *νοῦς*는 이해하지 못한다(고전 14:14-15, 19). 또 바울은 ‘*νοῦς*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롬 7:25)고 말하며, 구원받은 신자는 ‘*νοῦς*를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12:2)고 권면한다. 바울은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νόημα*를 혼미하게 하여’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한다(고후 4:4)고 가르친다. 방금 언급한 바울서신의 구절들에서 *νοῦς*와 *νόημα*는 『개정개역』에서 ‘마음’으로 번역되었는데, 적합한 번역어는 아닌 것 같다.

그런데 *καρδία*와 함께 *σῶμα*와 *σάρξ*에 대한 번역어 문제는 별도로 다룰 필요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세 인간론적인 용어들은 『개정개역』에서 일관성 있게 ‘마음’과 ‘몸’, ‘육신’으로 번역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아래에서 다룰 대상으로서의 인간론적인 용어는 실질적으로는 *πνεῦμα*와 *ψυχή*, *νοῦς*, *νόημα*의 네 단어로 제한이 되는 셈이다.

언어적 및 주석적인 근거가 뒷받침된 인간론적인 용어 연구와 그 용어들에 대한 정확한 번역의 문제는 특히 신자가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의 문제를 다루는 영성신학의 차원과 관련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여기서 이에 관련 구절들에 대한 자세한 주석적 논의를 할 수 없다. 다만 서양 번역 성경에서처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의 단어들을 비롯한 성경의 인간론적 단어들은 가능한 한 일관된 번역어로 번역되는 것이 최선일 것이라는 번역 원칙을 강조하고자 하며,²⁸⁾ 이를 위한 최선의 번역어의 제안을 하고자 한다. 그렇게 될 때 결과적으로 귀납법적인 방법으로 인간론적 용어들에 대한 단어 연구의 자료가 제공될 수 있는 효과가 있으리라 기대한다.

2.2. 『개정개역』에서의 인간론적 용어 *πνεῦμα*의 번역 문제

구약과 초기 유대교에서와²⁹⁾ 다르게, 신약에서는 신자의 *πνεῦμα*에 대한

Theologie des Neuen Testaments (München: Chr. Kaiser, 1976), 202.

27) G. D. Fee, *The First Epistle to the Corinthians*, 288-294.

28) 『개정개역』의 약점으로 “용어 번역의 통일성이 결여되었다”는 점이 지적된 바 있다. 참조, 옥성득, 『대한성서공회사 III』 (서울: 대한성서공회, 2020), 397.

29) 팔레스타인의 초기 유대교에서는 *ruah*(영)와 *nepheš*(영혼)는 거의 서로 구별 없이 쓰였다.

언급과 함께 성령과 악령을 가리키는 $\pi\nu\epsilon\tilde{\upsilon}\mu\alpha$ 언급이 비교가 되지 않게 많이 나오며 인간의 $\pi\nu\epsilon\tilde{\upsilon}\mu\alpha$ 에 많은 새로운 영적 기능들이 추가적으로 계시된 것이 특징적이다. 이에 대한 성경신학적인 설명을 한다면, 아마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종말론적인 축복의 약속이 성취된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즉 에스겔 36:25-27에 나오는 이 약속의 성취라는 말이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 속에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오늘날 많은 요한복음 주석가들에게서³⁰⁾ 예수께서 니고데모와의 대화 중에 성령으로 거듭남에 대하여 교훈하실 때 염두에 두고 하신 구약의 약속의 말씀이 바로 에스겔의 그 구절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인간이 완전히 내면적으로 새로워지고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이 내주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은 구약 중 그 구절이 거의 유일하기 때문에 설득력이 있는 해석이라 여겨진다. 그러나 직접 사람의 ‘영’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종말론적인 구원을 베푸시고 성령을 주시어 놀라운 변화의 새 삶이 있게 될 것이라는 약속은 구약 여러 곳에 자주 나타난다.³¹⁾

신약 시대의 신자의 깊은 속에 영이 있고 이 영이 내주하시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 복음에 대한 깨달음과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된다는 가르침은 바울에게서도 나타난다. 로마서 6:3-7에서 신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옛사람’이 죽고 그의 부활과 연합하여 “새

참조, E. Sjöberg, “ $\pi\nu\epsilon\tilde{\upsilon}\mu\alpha$ κτλ.,” Gerhard Kittel, hrsg., *ThWNT* 6 (Stuttgart: W. Kohlhammer Verlag, 1959), 374-375. 오늘날 유대교에서 인간의 ‘영’에 대한 관심이 극히 적은데, 그래서 R. J. Z. Werblowsky and J. Wigoder, eds., *The Oxford Dictionary of the Jewish Relig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1)에, 표제어 ‘soul’, ‘heart’ 등은 나타나지만, ‘spirit’는 나타나지 않는다.

30) C. K. Barrett, *The Gospel according to John* (Philadelphia: Westminster, 1978), 208-211, 187-198; D. A. Carson, *The Gospel according to John* (Grand Rapids: Eerdmans, 1991), 187-198; Craig S. Keener, *The Gospel of John: A Commentary* (Peabody: Hendrickson, 2003), 550-558, 92-94; F. J. Moloney, *The Gospel of John* (Collegeville: Liturgical Press, 1998), 93-94; John Painter, *1, 2, and 3 John* (Collegeville: Liturgical Press, 2002), 224, 230-236, 252-253; A. J. Köstenberger, *A Theology of John's Gospel and Letters* (Grand Rapids: Zondervan, 2009), 347-350, 474-476.

31) 사 44:3-5; 57:15-19; 59:20-60:22; 61:4-11; 65:17; 렘 31:31-34; 겔 11:19; 18:31; 단 12:2-3; 솔 2:28-32; 습 3:14-20; 숙 12:1-13:9; 14:16-21; 시 96:1. 참조, G. E. Ladd, 『신약신학』, 597. 초기 유대교에서도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시어 세상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새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는 기대가 강하게 나타났다는 증거들이 있다. 참조, J. D. G. Dunn, *Romans 1-8* (Dallas: Word Books, 1988), 123-124; G. K. Beale, *A New Testament Biblical Theology: The Unfolding of the Old Testament in the New*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11), 232-234.

생명 가운데 행하게 되었다.” 로마서 8:14-16과 고린도전서 2:10-16에서도 이 사실에 대하여 분명하게 가르친다.³²⁾ 신자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며 …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롬 8:16). ‘사람의 속에 있는 영’이 자신의 깊은 내면에서 이뤄진 일을 알며 신자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통해 ‘신령한 것’을 알게 된다. 바울은 ‘내 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롬 1:9)고 말하기도 한다. 데이빗 스테이시(W. David Stacey)는 바울의 인간론적 용어로서의 *πνεῦμα*에 대한 분석을³³⁾ 시도한 후 다음과 같은 예리한 통찰을 말하였다: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πνεῦμα*를 소유하고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πνεῦμα*는 하나님의 성령과의 교제 속에서 새로운 특성과 새로운 존엄을 가진다(롬 8:10).’³⁴⁾

신약에서 신자의 영의 특성과 기능에 대한 묘사는 부분적으로 구약의 평행구를 찾아 이해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신약에는 독특한 새로운 기능을 말하는 경우들도 적지 않다. 구체적으로 관련 구절들을 하나하나 다 다룰 수 없고 정확한 이해와 범주화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학자들의 선행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신약에서의 거듭난 신자의 ‘영’의 특징적인 기능들을 대체로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보겠다:³⁵⁾

(1) 사람은 자기 속에 있는 영³⁶⁾을 통하여 다른 이의 내면의 깊은 사정을 알 수 있다(고전 2:11; 막 2:8; 8:12; 약 4:5³⁷⁾).

(2) 영은 몸을 떠나 시공을 초월하여 먼 곳에 가서 그곳의 사정을 알 수 있다(고전 5:3-4; 골 2:5).³⁸⁾

32) J. D. G. Dunn, *Romans 1-8*, 417, 454: “바울은 그것[= 인간의 영]에 대하여 아주 자주 언급하지는 않지만, 그의 인간론이 인간의 영적 차원(과 동일시하지 말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해 주는 데 충분하다고 할 만큼 자주 언급하고 있다.”

33) W. D. Stacey, *The Pauline View of Man*, 121, 128-129.

34) *Ibid.*, 135.

35) 부분적으로는 해석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자세한 학문적 및 주석적 논의는 다음의 선행 연구들을 참조 바람: F. Baumgärtel, “*πνεῦμα* etc.”, 357-366; E. Schweizer, “*πνεῦμα* etc.”, 387-345; H. W. Wolff, *Anthropologie des Alten Testaments*, 57-67; 오성중, “*Pneuma*와 *Psyche*,” 174-179. 여기서 열거하고 있는 구절들에 나타나는 영적 경험들은 보통 사람들도 흔히 공유하는 것은 아니며 특별히 성령 충만한 이들의 영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이다. 여기서는 성령 충만한 이들에게 현저하게 나타난 경험들을 통해 신자의 영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잠재적) 기능들을 찾아보려는 것이다.

36) 하나님께서 사람 속에 *ruah*를 지으셨다고 말한다: 민 16:22; 27:18; 욥 32:8; 전 12:7; 사 57:16; 숙 12:1; 참조, 히 12:9.

37) 『개역개정』에서 “성령”이라고 번역한 원문의 *πνεῦμα*는 (NKJV, NLT, 『개역개정』처럼) ‘성령’을 가리킬 수도 있으나 ‘(인간의) 영’을 가리킬 수도 있다.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번역 성경들(NRS, NIV, NEB, ESV, 『표준』 등)과 주석가들은 후자의 의미로의 번역을 선호한다. 참조, P. Davids, *Commentary on James* (Grand Rapids: Eerdmans, 1983), 162-164.

38) 참조, “당신의 *ruah*의 갑절을 내게 있게 하소서”(왕하 2:9 NRSV/NIV의 번역!); “다니엘의

(3) 영은 깊은 안심 또는 건디기 힘든 강한 불안과 스트레스의 좌소가 된다(요 11:13; 고전 16:18; 고후 2:12; 7:13).³⁹⁾

(4) 영은 깊은 양심적인 깊은 깨달음과 강렬한 열정의 주체가 된다(요 13:21; 행 17:16; 18:25; 롬 12:11).⁴⁰⁾

(5) 영은 (성령의 도우심으로)⁴¹⁾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실재를 인식하며 상응한 행동과 성품을 조장하는 주체이다(마 5:3;⁴²⁾ 갈 6:1;⁴³⁾ 고전 2:11-15; 4:21; 고후 4:13; 롬 8:16; 딤후 1:7).

(6) 영으로 하나님께 더욱 진실되게 예배할 수 있고, 영은 몸이 피곤할 때에도 기도드리기를 원하며 그래서 영이 강해질 필요가 있다(롬 1:9; 마 26:41; 막 14:38; 눅 1:80; 참조, 엡 3:16).

(7) 영은, 이성(νοῦς)으로는 알지 못하는 비밀을, 방언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다(고전 14:2, 14-16).⁴⁴⁾

(8) 영은 성령의 감화로 예언하는 주체가 될 수 있고 다른 성령의 은사가

*rûah*가 민첩하여”(단 5:12; 6:3).

39) 구약에서 바로와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 후 그리고 다니엘이 환상을 본 후 그들의 *rûah*가 깊은 번민에 빠진 일에 대해 말하며(창 41:8; 단 2:1,3; 7:15), 잠언에서는 근심이 *rûah*를 상하게 하며 상한 *rûah*가 건강을 무너지게 만든다고 말한다(15:13; 17:22; 18:14).

40) 참조, 시 51:10, 12, 17; 겔 11:19-20; 18:31-32; 36:25-27; 라 1:1, 5; 대상 5:26; 대하 21:16; 학 1:14.

41) 신자의 *πνεῦμα*에 대한 바울의 이해에 대한 다음의 의미 있는 해석도 참조 바람: ‘그리스도인의 ‘영’에 대한 매번의 언급에는 성령에 대한 생각이 잠재적으로 나타나 있다.’ G. G. Findlay, *The First Epistle to the Corinthians* (Grand Rapids: Eerdmans, 1961), 806; G. D. Fee, *The First Epistle to the Corinthians*, 210에서 재인용.

42)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마 5:3의 οἱ πτωχοὶ τῷ πνεύματι(‘πνεύμα에 있어서 가난한 자들’)는 사 57:15와 61:1(= 마 11:5)과 66:2를 배경으로 한 표현이라고 이해한다. 마 5:3에서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들인 ‘*‘ānāwīm*, 곧 이사야서에 예언된 종말론적 구원 약속이 메시아 예수를 통해 성취됨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천국’의 행복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참조, D. A. Hagner, *Matthew 1-13* (Waco: Word Books, 1995), 91-92; R. A. Guelich, *The Sermon on the Mount: A Foundation for Understanding* (Waco: Word Books, 1982), 66-75.

43) 바울은 갈 6:1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신령한 자들’(πνευματικοί)이라고 불러 내주하시는 성령(3:2, 4, 14; 4:6)의 인도를 받아 사는 신분의 사람임을 밝히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인의 성화된 성품 형성과 윤리적 삶이 성령으로 이뤄짐을 강조한다(참조, 고전 3:1; 고후 3:3, 18; 갈 5:5, 16-18, 22-25; 롬 8:1-16). 갈 6:1과 고전 4:21의 “은유(의 영)”와 딤후 1:7의 “사랑과 절제(의 영)”는 “성령의 열매”(갈 5:22-23)에 속한다. R. N. Longenecker, *Galatians* (Dallas: Word Books, 1990), 273-274; D. A. DeSilva, *The Letter to the Galatians* (Grand Rapids, Eerdmans, 2018), 481-482; W. D. Mounce, *Pastoral Epistles* (Dallas: Word, 2000), 477-479.

44) 고전 14:2,14-15에서 바울이 말하는 “영”을 어떤 이들은 인간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선물로 주신) “내 안에 계신 성령”이라고 본다. 예: R. Bultmann, *Theologie des Neuen Testaments*, 208; R. B. Gaffin Jr., *Perspectives on Pentecost: New Testament Teaching on the Gifts of the Holy Spirit* (Philadelphia: P&R, 1979), 76-77. 그러나 이것은 바울의 어법과 맞지 않는 해석이다. 래드(G. E. Ladd, 『신약신학』, 577-578)의 바른 해석을 참조 바람.

나타나는 통로가 된다(고전 14:12,⁴⁵) 32).

(9) 영은 주님과 연합하여 “한 영”이 되고(고전 6:17)⁴⁶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 하는 주체가 된다(갈 6:25, 빌 4:23; 딤후 4:22; 몬 25).⁴⁷

(10) 신자의 영은 육신의 죽음을 초월하며 죽을 때 몸을 떠나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가서 신적 생명을 누리게 되며 불신자의 영은 음부에 들어가게 된다(마 27:50; 23:46; 행 7:59; 고전 5:5; 히 12:23; 벧전 4:6; 참조, 눅 23:43; 살전 4:13-17).⁴⁸)

마음(καρδία)이나 혼(ψυχή)은 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은, 영(πνεῦμα)의 독특한 기능들을 가지지 못한다.⁴⁹) 그래서 신약의 그리스어 πνεῦμα의 상용어

45) 고전 14:12a을 영역 성경들은 대부분 “spiritual gifts/gifts of the Spirit” (NRSV/TNIV)로 의역하나, 원문(πνευμάτων)은 ‘영들’을 가리킨다. 즉 신자의 영이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통로라는 뜻으로 말하고 있다고 보아야 정확한 이해가 될 것이다. 참조, G. D. Fee, *God's Empowering Presence: The Holy Spirit in the Letters of Paul* (Peabody: Hendrickson, 1994), 226-227; G. D. Fee, *The First Epistle to the Corinthians*, 666.

46) 바울이 ‘주님과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라고 말할 때, 바로 앞 절에서 말한 “창녀와 합하는 자는 한 몸이다”는 진술에 대조시켜 말한 것이고 또 다음 절에서 신자의 몸에 내주하시는 성령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바울은 여기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고후 3:17; 롬 8:9)을 통하여 신자의 영이 그리스도와 영적인 연합을 이루는 영적 현실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겠다(참조, 8:16; 엡 3:16-17). 참조, F. W. Grosheide, *Commentary on the First Epistle to the Corinthians* (Grand Rapids: Eerdmans, 1984), 150-151; G. D. Fee, *The First Epistle to the Corinthians*, 287, 260: “한 분 성령”을 통하여 신자의 ‘영’이 그리스도와 분리될 수 없도록 결합되었다. … The believer is united with the Lord and thereby has become one S/spirit with him.”

47) 바울서신의 맨 끝에 나오는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나의 영과 함께 …” 라는 축원을 깊은 은혜의 깨달음과 경험을 기원하는 마음의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다. 참조, P. Stuhlmacher, *Der Brief an Philemon*, EKK XVIII (Zürich: Benziger, 1975), 56; H. Alford, *The Greek Testament* (Grand Rapids: Guardians Press, 1976), 3:67; W. D. Mounce, *Pastoral Epistles*, 477; J. Calvin, *The Epistles of Paul The Apostle to the Galatians, Ephesians, Philippians and Colossians* (Grand Rapids: Eerdmans, 1974), 119: ‘은혜는 우리의 영에 도달이 될 때만이 우리가 누리는 것이 된다.’

48) 신약의 저자들은 신자와 불신자 모두 죽은 후 그들의 영은 몸을 떠나 살아 있는 존재로 있다고 이해한다(눅 8:55; 약 2:26; 벧전 3:19).

49) 신약 저자들이 πνεῦμα가 ψυχή와 본질적으로 구별된 의미의 단어로 사용하였다는 또 하나의 분명한 근거는 ψυχή의 형용사형 ψυχικός를 사용한 용례들에서 찾아볼 수 있다. 바울은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이지 않고 ‘영적인 일’에 대하여 무지한 불신자를 ‘ψυχικός한 자’라고 불렀다(고전 2:14). 또 바울은 죽음과 부패의 운명을 가진 인간의 몸인 ‘ψυχικός한 몸’을 ‘생명을 주시는 영’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부활하여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πνευματικός한 몸’과 대조시켰다(고전 15:44-46). 야고보도 독한 시기와 질투심을 특징으로 한 지혜를 ‘세상적이며 ψυχικός하며 마귀적인’ 지혜라고 불렀다(약 3:14-18). 또 유 1:18-20절에서는, 경건한 성도들에 대조되어, 정욕을 따라 살며 공동체를 분열시키며 ‘성령이 없는’ 자들을 ‘ψυχικός한 자들’이라고 지칭하였다. 고전 그리스어와 LXX에는 그러한 용례가 전무한데 신약에서는 독특하게 그렇게 쓰인 것이다. 참조, Schweizer, “πνεῦμα etc.,”

인 히브리어 *rúah*가 LXX에서 거의 일관되게 $\piνεϋμα$ 로 번역되었고, 신약의 같은 단어가 영역 성경에서는 예외 없이 ‘spirit’(성령을 가리키는 경우는 ‘Spirit’)으로 번역된 것이다. 반면에 『文理譯』과 『개역개정』은 그러한 일관성 있는 번역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제 $\piνεϋμα$ 에 대한 『개역개정』의 번역어 문제를 살펴보자.⁵⁰⁾

성구	『개역개정』	제안	『文理譯』	NRSV	ESV	LUT
마 5:3	심령	영	心	spirit	spirit	geistlich
눅 1:17	심령	영	情性	spirit	spirit	Geist
눅 1:80	심령	영	精神	spirit	spirit	Geist
요 11:33	심령	영	心	spirit	spirit	Geist
요 13:21	심령	영	心	spirit	spirit	Geist
롬 1:9	심령	영	一心	spirit	spirit	Geist
롬 11:8	심령	영	目	spirit	spirit	Geist
고후 2:13	심령	영	心	spirit	spirit	Geist
갈 6:1	심령	영	心	spirit	spirit	Geist
갈 6:18	심령	영	心志	spirit	spirit	Geist
엡 4:23	심령	영	心	spirit	spirit	Geist
빌 4:23	심령	영	(번역 안 함)	spirit	spirit	Geist
골 2:5	심령	영	神	spirit	spirit	Geist
딤후 4:22	심령	영	心志	spirit	spirit	Geist
몬 1:25	심령	영	心志	spirit	spirit	Geist
벧전 3:4	심령	영	神	spirit	spirit	Geist
막 2:8	중심	영	(번역 안 함)	spirit	spirit	Geist
마 26:41	마음	영	心	spirit	spirit	Geist
막 8:12	마음	영	中心	spirit	spirit	Geist
막 14:38	마음	영	心	spirit	spirit	Geist

435-436; A. Dihle, “ $\psiυχικός$ ”, Gerhard Kittel, hrsg., *ThWNT* 9 (Stuttgart: W. Kohlhammer Verlag, 1979), 661; G. D. Fee, *The First Epistle to the Corinthians*, 121-122, 869, 875-876; C. L. Blomberg & M. J. Kamell, *James* (Grand Rapids: Zondervan, 2008), 173-174; R. J. Bauckham, *Jude, 2 Peter* (Waco: Word, 1983), 106. 『개역개정』에서는 위의 $\psiυχικός$ 구절들에서 “육에 속한”(고전 2:13; 유 1:19), “육의”(고전 15:44, 46)로 번역하였는데, 이런 번역어는 $\sigmaαρκικός$ 나 $\sigmaάρκινος$ 에 대한 것일 수 있으나, 본래 개념상으로 서로 다르다. 그러한 번역은 서양의 번역 성경들에서는 생소한 것들이다. 약 3:15의 “정육의 것”은 적절한 번역어일 수 있겠다.

50) 『개역개정』에서 인간적 용어로서의 $\piνεϋμα$ 를 ‘영’이라고 번역한 경우는 여기서 다루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성구	『개역개정』	제안	『文理譯』	NRSV	ESV	LUT
눅 1:47	마음	영	神	spirit	spirit	Geist
행 17:16	마음	영	心	spirit	spirit	Geist
고전 4:21	마음	영	意	spirit	spirit	Geist
고전 16:18	마음	영	心	spirit	spirit	Geist
고후 4:13	마음	영	心	spirit	spirit	Geist
딤후 1:7	마음	영	心	spirit	spirit	Geist
마 27:50	영혼	영	氣	spirit	spirit	Geist
눅 23:46	영혼	영	神	spirit	spirit	Geist
요 19:30	영혼	영	氣	spirit	spirit	Geist
행 7:59	영혼	영	神	spirit	spirit	Geist
약 2:26	영혼	영	神	spirit	spirit	Geist

2.3. 『개역개정』에서의 인간론적 용어 ψυχή의 번역 문제

신약에 나오는 그리스어 ψυχή의 구약 히브리어 상응어인 *nepheš*는 구약에서 총 754회 쓰였다. 특히 시편(144회 쓰임)에서 자주 독특하게 체유(提喻, synecdoche)적인 의미로 쓰였다.⁵¹⁾ 그러나 신약에서는 그러한 의미의 용례는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는 편이다.⁵²⁾ ψυχή는 신약에서 총 103회 나올 뿐인데,⁵³⁾ 주로 4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 쓰였고(63회), 13개의 바울서신 중에는 고작 13회만 나타난다. 개념사적 변천일 것이다. 학자들의 연구⁵⁴⁾ 결과를 종합해 볼 때, ψυχή는 신약에서 문맥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의미의 범주들로 다양하게 사용되었다:⁵⁵⁾

51) 참조, C. Westermann, “*נֶפֶשׁ*: Seele”, 72-96.

52) BDAG, 1099에서는 신약 중 이런 용례가 13곳에 나온다고 설명한다. 이 중 바울서신에서는 오직 한 곳(고후 1:23)만 관계있을 뿐이다.

53) 그 대부분은, 구약 인용문이나 히브리적 시의 표현(예: 눅 1:46, 12:19-20, 롬 11:3, 고전 15:45 등)으로 쓰인 경우 외에는, 구약적 의미의 ‘영혼’이 아니라, (육신적) ‘목숨’을 뜻하는 말(예: 마 6:20, 6:25 등)으로 쓰인 것이 특징적이다.

54) 참조, BDAG, 1098-1100; HALAT, 672-674; E. Jacob & E. Schweizer, “ψυχή κτλ.”, 614-629; E. Schweizer, “ψυχή κτλ.”, 635-657; W. D. Stacey, *The Pauline View of Man*, 121-127; H. A. Wolff, *Anthropologie*, 25-48; C. Westermann, *נֶפֶשׁ*, 71-96.

55) 물론 문맥에 따라 단어의 정확한 의미를 확정해야 하는데, 어떤 경우들에서는 주석가들 사이에 ψυχή의 의미의 범주를 다르게 판단할 만큼 애매한 경우도 있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막 10:45: “자기 자신”(BDAG) 또는 “영혼”(NRSV, ESV, LUT); 눅 11:20: ‘목숨’(BDAG, NRSV) 또는 ‘영혼’(ESV, LUT); 마 10:39ab; 16:25ab, 26ab; 막 8:35ab, 36, 37; 10:45; 눅 9:24ab; 12:20; 14:26: ‘목숨’(NRSV, ESV, LUT) 또는 ‘영혼’(BDAG).

(1) (이 세상에서의 육신적) **목숨**:⁵⁶ 마태복음 2:20; 6:25ab; 10:39ab; 16:25ab, 26ab; 마가복음 3:4; 8:35ab, 36, 37; 10:45; 누가복음 6:9; 9:24ab; 12:20, 22, 23; 14:26; 17:33; 20:24, 요한복음 10:11, 15, 17; 12:25ab; 13:37, 38; 15:13; 사도행전 15:26; 20:10, 24; 27:10, 22; 로마서 11:3; 16:4; 빌립보서 2:30; 데살로니가전서 2:8; 9:28; 요한1서 3:16ab; 요한계시록 8:9; 12:11.

(2) [사람의 수] **명(名), 사람, 생물**:⁵⁷ 사도행전 2:41, 43; 3:23; 7:14; 27:37; 로마서 2:9; 13:1; 고린도전서 15:45; 베드로전서 3:20; 유다서 1:15; 요한계시록 16:3; 18:13.⁵⁸

(3) (마음 속 깊은 곳의 정서와 감정을 뜻하는) **영혼**:⁵⁹ 마태복음 11:29; 12:18; 22:37; 26:38; 마가복음 12:30; 14:34; 누가복음 1:46; 2:35a; 10:27; 요한복음 10:24; 12:27; 사도행전 4:32; 14:2, 22; 15:24; 에베소서 6:6; 빌립보 1:27; 골로새서 3:23; 데살로니가전서 5:23; 히브리서 4:12; 10:38; 12:3; 베드로후서 2:8; 요한계시록 18:14.

(4) [개인의 고유한 인격을 대표하며 그 사람 자신의 정체성을 뜻하는 존재로, 그래서 지상의 생명을 초월해서 존재하는, 또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영혼**:⁶⁰ 마태복음 10:28ab; 누가복음 21:19; 사도행전 2:27; 고린도후서 1:23; 12:15; 히브리서 6:19; 10:39; 13:17; 야고보서 1:21; 5:20; 베드로전서 1:9, 22; 2:11, 25; 4:19; 베드로후서 2:14; 요한3서 1:2; 요한계시록 6:9; 20:4.

(5) (셈족 언어 내지는 구약 히브리어 특성에 속하는 바 재귀 대명사처럼

56) 참조, 창 9:4-5; 35:18; 레 17:11; 사 53:12; 삼상 25:29; 왕상 17:21; 시 30:4. 그런데 BDAG, 1099는 마 10:39ab; 16:25ab, 26ab; 막 8:35ab, 36, 37; 10:45; 눅 9:24ab; 17:33; 요 10:11; 12:25의 용례에서 ψυχή가 위의 카테고리(4)의 의미로 쓰인 것으로 설명하나, 대부분의 성경 번역들(NRS, ESV, LUT, EIN)에서는 ‘목숨’을 번역어로 선택한다.

57) 참조, 창 1:20, 21, 24; 2:7; 9:10, 12; 12:5; 46:15; 출 1:5; 레 4:2; 5:1; 11:10; 17:10; 민 5:2; 9:13; 신 10:22; 렘 43:6.

58) 계 18:13의 ψυχὰς ἀνθρώπων은 문자적으로는 ‘사람들의 영혼들을’이지만, 큰 음녀로부터 부(富)를 얻었던 상인들이 바벨론의 멸망 후 세속적 욕망을 만족시키는 상품들을 더 이상 거래할 수 없게 된 것을 탄식하는 말을 시적으로 표현하는 문맥(18:11-17)에 나오는 말로서 인간을 노예와 치부(致富)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여, 오늘날 주석가들은 대체로 ‘사람들’(human beings)로 번역한다. R. H. Mounce, *The Book of Revelation* (Grand Rapids: Eerdmans, 1997), 330-331; D. E. Aune, *Revelation 17-22*, WBC 52C (Waco: Word, 1998), 969.

59) 참조, 창 23:8; 34:3; 삼상 1:15; 2:16; 렘 34:16; 욥 19:2; 30:16; 시 42:3; 63:2; 잠 19:2.

60) 이 단어 의미의 범주에 해당될 때 ψυχή를 (육신적이고 지상적인) ‘목숨’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영혼’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적절함을 명백히 보여주는 예를 마 10:28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구절을 『개역개정』은 다음과 같이 적절하게 번역하고 있다: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쓰인 *nepheš*의 의미의) 영혼, 자기 자신: 누가복음 12:19ab; 요한복음 10:24; 고린도후서 1:23; 히브리서 13:17.

위의 분류에서 인간론적 용어로서의 *ψυχή*의 번역 문제를 다룰 때 (3)와 (4)의 의미로 쓰인 경우만 우리의 논의의 대상이 될 것이다. 그런데 어의적 범주들 (3)과 (4)와 (5)는 실제에 있어서 서로 구분하기 애매한 경우들이 여러 곳 있음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⁶¹⁾ 단지 우리는 여기서 *ψυχή*가 ‘목숨,’ ‘마음,’ ‘영’ 등으로 번역된 경우들은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이다. 몇 곳에서 쓰인 관용구적 용례들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옳을 것 같다.⁶²⁾ 이제 『개역개정』에서 문제가 된다고 여겨지는 *ψυχή*의 번역어를 살펴보고 최선으로 생각되는 번역어를 제안해본다.

성구	『개역개정』	제안	『文理譯』	NRS	ESV	LUT
마 11:29	마음	영혼	心	soul	soul	Seele
마 12:18	마음	영혼	心	soul	soul	Seele
마 22:37	목숨	영혼 ⁶³⁾	性	soul	soul	Seele
마 26:38	마음	영혼	性	soul	soul	Seele
막 12:30	목숨	영혼	性	soul	soul	Seele
막 14:34	마음	영혼	心	soul	soul	Seele
눅 2:35a	마음	영혼	心	soul	soul	Seele
눅 10:27	목숨	영혼	性	soul	soul	Seele
요 12:27	마음	영혼	心	soul	soul	Seele
행 4:32	마음	영혼	志	soul	soul	Seele
행 14:2	마음	영혼	心裡	minds	minds	Seelen
행 14:22	마음	영혼	心	soul	soul	Seelen
행 15:24	마음	영혼	心	minds	minds	Seelen
롬 2:9	영	사람	(번역안함)	one	being	Seelen
고전 15:45	영	사람/생물	人	being	being	Wesen
고후 1:23	목숨	영혼	心	(번역안함)	soul	Seele
살전 5:23	혼	영혼	心	soul	soul	Seele
히 4:12	혼	영혼	魂	soul	soul	Seele
히 10:38	마음	영혼	心	soul	soul	Seele
벧후 2:8	심령	영혼	心	soul	soul	Seele

61) BDAG, 1099는 마 11:29; 26:38; 막 10:45; 14:34; 눅 12:19; 14:26; 요 10:24; 12:27; 고후 1:23; 12:15; 히 13:17; 요3 1:2; 계 18:1을 위의 어의적 범주 5)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 경우들은 재귀적 의미로도 번역될 수 있을 것이다.

62) 이 범주에 드는 구절들에 나오는 부사구들인 ἐκ ψυχῆς(엡 6:6; 골 3:23)와 μὴ ψυχῆ(빌 1:27)는 『개역개정』에서 각기 “마음으로”와 “한 뜻으로”로 번역하였는데, 적절한 번역이라고 본다. 그리고 관용구인 ταῖς ψυχαῖς ὑμῶν λυόμενοι는 『개역개정』에서 “낙심하는”으로 번역하였는데, 역시 적절한 번역이다. 참조, BDAG, 306.

2.4. 『개역개정』에서의 인간론적 용어 νοῦς와 νόημα의 번역

구약에서 인간의 정신적 및 정서적인 활동, 즉 인간의 지(知)·정(情)·의(意)의 모든 활동이 이뤄지는 자리를 가리키는 전형적인 히브리어 단어는 *leb/lebāb*인데, 그에 상응하는 신약의 단어는 그리스어 καρδιά이다. 구약과 신약 모두에서 우리말로 일반적으로 ‘마음’으로 번역된다. 구약이나 신약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인간의 종교적 태도는 전인격적인 것이어야 하므로 자연스럽게 이 ‘마음’은 종교적인 기능을 하기도 한다. 인간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해야 한다(신 6:5; 11:13; 막 12:30).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며(삼상 16:7) 참된 할례는 ‘마음’의 할례이다(렘 4:4; 롬 2:29).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마 5:8),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말하나 ‘마음’으로 하지 않는 자는 거짓 신앙인이다(막 7:6).

그런데 구약 히브리어에는 상응어가 없는⁶⁴⁾ 인간론적인 용어로서, 인간의 사고(思考)와 이해의 기능을 하는 주체를 가리키는 그리스어 단어가 신약에 나타나는데, 곧 그리스어 동사 νοέω의 명사형인 νοῦς/νόημα이다.⁶⁵⁾ 신약에서 본래 인지적인 기능도 내포하고 있는 καρδιά와 어의적(語義的)으로 얼마간의 겹치는 면이 있기도 한 νοῦς/νόημα는 본래, 정서적이고 의지적인 기능과는 관계가 적은, ‘사고력’, ‘이해력’, ‘판단력’, ‘통찰력’, ‘지성’, ‘생각’ 등을 뜻한다.

신약에서 νοῦς와 νόημα는 각기 24회, 6회 나온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고대 그리스어에서 νόημα는 νοῦς의 활동의 결과를 가리켜 사용되어 ‘생각된 것, 사상, 의도된 것’을 뜻하였고⁶⁶⁾ 그래서 신약에서는 항상 복수로 쓰였다.⁶⁷⁾ 그러나 신약에서 두 단어는 실제로 흔히 거의 어의적 구별이 없이 쓰였다. 그래서 서양 번역 성경들에서도 많은 경우 상호 구별 없이 같은 단어로 번역하는 경향이 있다.

63) 마 22:37과 막 12:30과 눅 10:27에 나오는 ψυχή(= *nephēs* 신 6:5)가 ‘목숨’을 뜻하는지 ‘영혼’을 뜻하는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인간론적 용어들을 나란히 사용하여 전인적·전인격적인 하나님 사랑을 말하고 있는 문장 중에 나온 단어로 보아 ψυχή는 ‘목숨’보다 ‘영혼’으로 번역하는 것이 최선인 것 같다. 참조, R. T. France, *The Gospel of Matthew*, NICNT (Grand Rapids: Eerdmans, 2007), 319-320; J. Gnilka, *Das Evangelium nach Markus (Mk 8,27-16,20)*, (Köln: Benziger, 1979), 165; R. H. Stein, *Mark*, BECNT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8), 561; Darrell L. Bock, *Luke 9:51-24:53*, BECNT (Grand Rapids: Baker Academic, 1996), 1025. 최신 유대인의 영역 성경 JPS TNK에서도 신 6:5의 *nephēs*를 ‘soul’로 번역하였다.

64) J. Behm, “νοέω κτλ.,” 952; E. Hatch and H. A. Redpath, *Concordance to the Septuagint*, 946.

65) J. Behm, “νοέω κτλ.,” 951; LSJM, 1180-1191.

66) J. Behm, “νοέω κτλ.,” 958-959; LSJM, 1178.

67) 고후 10:5에서 예외적으로 단수형이 나오나 πᾶν νόημα라는 표현으로 쓰였으므로 실제에 있어서는 복수의 의미가 들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개역개정』에서 $\nu\omicron\upsilon\varsigma$ 는 대부분 ‘마음’으로 번역되었다(21회).⁶⁸⁾ ‘마음’/‘heart’에 대한 그리스어 상응어는 $\kappa\alpha\rho\delta\acute{\iota}\alpha$ 이며 두 그리스어는 어의적으로 분명한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nu\omicron\upsilon\varsigma$ 의 번역어로 ‘마음’은 매우 부적절하다.⁶⁹⁾ ‘정신’이 최적의 번역어인 것 같다. ‘생각’ 또는 ‘이성’ 등도 적절할 것 같다.

이제 아래에서 『개역개정』에서의 $\nu\omicron\upsilon\varsigma$ 의 번역 문제에 대해 살펴보고 최선이라고 생각되는 번역어를 제안하겠다:

성구	『개역개정』	제안	『文理譯』	NRS	ESV	LUT
눅 24:45	마음	정신/ 이해력	聰令	minds	minds	Verständnis
롬 1:28b	마음	정신	心	mind	mind	Sinn
롬 7:23	마음	정신/이성	心	mind	mind	Gemüt ⁷⁰⁾
롬 7:25	마음	정신/이성	心	mind	mind	
롬 11:34	마음	정신/생각	內心	mind	mind	Gedanken
롬 12:2	마음	정신/생각	心	minds	mind	Sinn
롬 14:5	마음	생각/소견	精	minds	mind	Meinung
고전 1:10	마음	정신/생각	心	mind	mind	Sinn
고전 2:16	마음	정신/생각	心	mind	mind	Sinn
고전 14:14	마음	정신/생각	意	mind	mind	Verstand
고전 14:15	마음	정신/생각	意	mind	mind	Verstand
고전 14:19	깨닫는 마음	정신/생각	意	mind	mind	Verstand
고후 4:4	마음	정신/생각	心	mind	mind	Sinn
엡 4:17	마음	정신/생각	志意	minds	minds	Sinn
엡 4:23	심(령)	(영과) 정신	心(神)	(spirit of) your minds	(spirit of) your minds	(Geist und) Sinn
빌 4:7a	지각	이해력	志	under- standing	under- standing	Verstehen
살후 2:2	마음	정신/생각	心	mind	mind	Sinn
딤후 6:5	마음	정신/생각	心	mind	mind	Sinn
딤후 3:8	마음	정신/생각	心	minds	mind	Sinn
딤후 1:15	마음	정신/생각	心	minds	minds	Sinn
계 13:18	총명	이해력	知	under- standing	under- standing	Verstand

68) 다른 번역어를 택한 경우들: 빌 4:7a(“지각”); 골 2:18(“생각”); 계 13:19(“총명”); 17:9(“뜻”).

69) 자세한 것은 다음 논문을 참조 바람: 오성중, “신약에서의 ‘이성적 사고력’: Nous와 Noēma,” 『개혁논총』 10(2009), 355-379.

성구	『개역개정』	제안	『文理譯』	NRS	ESV	LUT
계 17:9	뜻	정신	心	mind	mind	Sinn

이제 『개역개정』의 νόημα(τα)의 번역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자:

성구	『개역개정』	제안	『文理譯』	NRS	ESV	LUT
고후 2:11	계책	의도	謀	designs	designs	Sinn
고후 3:14	마음	생각	心	minds	minds	Sinn
고후 4:4	마음	생각	心	minds	minds	Sinn
고후 11:3	마음	생각	心	thoughts	thoughts	Gedanken

3. 일관성 있는 번역이 요청되는, 성령론적 함의가 있는 문제 번역

신약 원문에서 그리스어 표현 (τὸ) πνεῦμα⁷¹⁾가 ‘거룩한’을 뜻하는 형용사 (그리스어: ἅγιον)가 수식어로 붙어 있지 않으면서도 문맥상 ‘성령’을 가리키는 경우는 매우 흔하다. 이 경우는 영역 성경과 불역 성경에서는 일반적으로, ‘the spirit/l’esprit’가 아니라, ‘the Spirit/l’Esprit’로 번역하여 ‘성령’을 가리키는 것임을 밝혀주어 혼동을 피하게 한다. 그런데 그러한 경우 국역 성경에서는 일반적으로, ‘영’이라고 직역하지 않고, ‘성령’이라고 번역하여 혼동을 예방한다. 예를 들면, 『개역개정』에서 마가복음 1:10의 본문이 “πνεῦμα가 그(= 나사렛 예수) 위에 비둘기 같이 내려오셨다”고 되어 있는 것을 “성령이 …”라고 번역하였고, 에베소서 5:18의 본문이 “오직 πνεῦμα로 충만함을 받으라”로 되어 있는 것을 “오직 성령으로 …”라고 번역하였다. 이 같은 번역의 예를 『개역개정』에서 자주 찾아볼 수 있다.

그런데 『개역개정』에서 문맥상 명백하게 ‘성령’을 뜻하는 경우인데도 애매하게 ‘영’이라고 번역하여 인간의 ‘영’을 가리키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을 가리키는지 혼동을 일으키도록 번역된 예가 여러 곳 있다. 그 경우들은 위의 예들에서처럼 일관성 있게 ‘성령’으로 번역하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 물론 ‘하나님의/주의/그리스도의 πνεῦμα’(롬 8:9,14; 행 5:9; 벧전 1:11 등)처럼 그냥 ‘영’이라고 번역하더라도 ‘성령’을 가리키고 있음을 명백하게 나타내 주는 경우는 구태여 ‘성령’이라고 번역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70) 참조, 독일어 성경 EIN에서는 “Vernunft”(‘이성’)로 번역했음.

71) 신약에서 πνεῦμα가 성령을 가리키는 경우 대부분 정관사가 앞에 붙는다.

특히 로마서 8장 중의 여러 구절들을 대상으로 번역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인데, 로마서 8장에 나오는 $\piνεῦμα$ 는, 8:10, 15a, 16을 제외하고는, 성령을 가리킨다고 보는 데 있어서 주석가들 중 거의 이의가 없다.⁷²⁾ 인간의 영을 ‘생명의 영’이라 부를 수 없을 것이다. 사실 『개역개정』은 단독으로 나오는 8:2의 ‘(생명의) $\piνεῦμα$ ’를 “(생명의) 성령”이라고 번역했고 역시 단독으로 나오는 8:26-27에서의 ‘(성도를 위하여 도고하시는) $\piνεῦμα$ ’를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번역했다. 그런데 아쉽게도 4절 이하에서는 “영”이라고 번역하여 인간의 영을 가리킨다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게 한다.⁷³⁾ 바울서신에는 백여 회 성령이 언급되고 있다. 그 중 $\piνεῦμα$ 를 (‘하나님의/주의 영’ 등의 경우를 빼고) 단독으로 쓴 예가 형용사 ἄγιον을 덧붙인 경우 (15회)보다 다섯 배 가까이 많은데(72회), 이런 경우 『개역개정』은 실제 대부분 ‘성령’으로 번역했다(예: 엡 5:18; 갈 5:16-18, 22, 25 등).

이제 아래에서 『개역개정』에서 성령을 의미하는 경우의 $\piνεῦμα$ 의 번역에 대해 살펴보면서 최선의 번역어를 제안한다:⁷⁴⁾

성구	『개역개정』	제안	『文理譯』	NRS	ESV
요 3:6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성령 ⁷⁵⁾ 으로 난 것은 영이니	由神生者神也	and what is born of the Spirit is spirit	and that which is born of the Spirit is spirit
요 6:63a	살리는 것은 영이니	살리는 것은 성령 ⁷⁶⁾ 이시니	夫神所以生	It is the Spirit that gives life	It is the Spirit who gives life
롬 2:29	영	성령	內心	spirit	Spirit
롬 7:6	영	성령	聖神	Spirit	Spirit
롬 8:4	영	성령	神	Spirit	Spirit

72) 참조, J. D. G. Dunn, *Romans 1-8*, 412-464; Joseph A. Fitzmyer, *Romans*, AB 33 (N.Y.: Doubleday, 1993), 479-502; Robert Jewett, *Romans*, HCHCB (Minneapolis: Fortress, 2007), 474-503; Richard N. Longenecker, *The Epistle to the Romans*, NIGTC (Grand Rapids: Eerdmans, 2016), 675-710.

73) 실제 롬 8:1-17에서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이 대조되어 나오는 구절을 가지고 신자의 내면의 인간론적인 영과 육신과의 심리적 갈등으로 오해하여 설교하는 것을 종종 들을 수 있다.

74) 독일어 번역 성경에서는 $\piνεῦμα$ 를 ‘Geist’로 번역할 때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 독일어에서 명사 단어는 항상 첫 글자를 대문자로 표기하므로 ‘영’이나 ‘성령’이나 ‘Geist’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참고로 비교할 필요가 없겠다.

75) D. A. Carson, *The Gospel according to John*, 196-197; R. E. Brown, *The Gospel according to John*

성구	『개역개정』	제안	『文理譯』	NRS	ESV
롬 8:5βαβ	영, 영	성령, 성령	神, 神	Spirit, Spirit	Spirit, Spirit
롬 8:6	영	성령	神	Spirit	Spirit
롬 8:9a	영	성령	神	Spirit	Spirit
롬 8:13	영	성령	聖神	Spirit	Spirit
고후 3:17a	영	성령 ⁷⁷⁾	神	Spirit	Spirit
고후 3:18	주의 영	주 곧 성령	主之神	the Lord, the Spirit	the Lord who is the Spirit ⁷⁸⁾
딤후 3:16	영	성령	聖神	spirit	Spirit ⁷⁹⁾

4.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개역개정』에서 인간론적 용어들의 번역에 있어서 일관성 없게 번역된 중국어 성경 『文理譯』의 영향을 받아 번역된 번역어 전통을 여전히 따르고 있는 경향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특별한 이 유가 없는 한 신약에서 인간론적 용어로 쓰인 πνεῦμα와 ψυχή, νοῦς/λόγημα는, 영어 및 독일어 성경들처럼, 원어의 의미에 상응하는, 일관성 있는 번역

(i-xii) (N.Y.: Doubleday, 1970), 131: ‘요한에게 있어서 ‘육신’은 피조물의 연약성과 죽음을 면할 수 없음을 강조하며 … 성령은, 육신과 대조되어, 인간의 영역에서 역사하는 신적인 능력과 생명의 원리이다.’

76)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외에 어떤 종류의 영도 생명을 주지 못한다. D. A. Carson, *The Gospel according to John*, 301-302; Brown, *The Gospel according to John (i-xii)*, 299-300; C. K. Barrett, *The Gospel according to John*, 304: “... 성령의 본질적인 고유한 특성은 생명을 주시는 일이다. 요 3:5-8.”

77) P. E. Hughes, *The Second Epistle to the Corinthians* (Grand Rapids: Eerdmans, 1982), 115; P. Barnett, *The Second Epistle to the Corinthians* (Grand Rapids: Eerdmans, 1997), 199-201, 201: ‘그러나 ‘주님은 성령이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들의 성취로서의 성령의 오심을 가리킨다(1:20-22; 6:2; cf. Eze 36:27; Jer 31:33).’

78) 영역 성경 중 NKJV(1982)처럼 “just as by the Spirit of the Lord”와 같이 번역하는 예가 있기도 하나, 대부분의 다른 영역 성경들(NIV, New Century Version, Holman Christian Standard Version 등)은 위 표의 두 영역 성경과 같이 번역하고 있다. Lutherbibel도 ESV처럼 “von dem Herrn, der der Geist ist”라고 번역하였다. 참조, P. Barnett, *The Second Epistle to the Corinthians*, 208-209.

79) 기독교적인 신앙고백 중에 나오는 바, 그리스도의 부활이 생명 주시는 ‘성령’의 영역에서 또는 ‘성령’에 의해서 초자연적으로 이뤄진 것을 뜻하므로 이 구절에서의 πνεῦμα는, ESV처럼, ‘성령’을 가리키는 것으로 번역해야 옳을 것이다. 참조, G. D. Fee, *God’s Empowering Presence*, 765-766; I. H. Marshall, *The Pastoral Epistles* (Edinburgh: T&T Clark, 1999), 525-526.

어(‘영’, ‘영혼’, ‘정신/생각’등)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 단독으로 쓰였으나 문맥상 확실히 성령을 가리키는 πνεῦμα의 경우, 인간론적인 영을 뜻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으므로, 일관성 있게 ‘성령’으로 번역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본다. 특히 목회자들과 개인적 성경 연구자들이 원문을 참고하지 않고서도 『개역개정』의 본문을 읽으면서 원문을 참고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도 그러한 일관성 있는 번역은 도움이 될 것이다.

<주제어>(Keywords)

『개역개정(신약)』, 『文理譯』(Delegates’ Version), 번역어, 인간론적 용어들, 성령.

NKRV (NT), Delegates’ Version, Translated Words, anthropological terms, Holy Spirit.

(투고 일자: 2020년 2월 3일, 심사 일자: 2020년 8월 28일, 게재 확정 일자: 2020년 10월 22일)

<참고문헌>(References)

- 민영진, 『개역개정판 이렇게 달라졌다』, 서울: 대한성서공회, 2003.
- 민영진, 『국역성서연구』, 서울: 성광문화사, 1984.
- 박형룡, 『교의신학-인죄론』, 서울: 한국기독교교육연구원, 1988.
- 옥성득, “초기 한글성경 번역에 나타난 주요 논쟁 연구(1877-1939)”, 석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1993.
- 옥성득, 『대한성서공회사 III』, 서울: 대한성서공회, 2020.
- 이덕주, “초기 한글성서 번역에 관한 연구”, 『한글성서와 겨레문화』, 그리스도교와 겨레문화연구회 편, 서울: 기독교문사, 1985.
- 히로 다카시(廣 剛), “개화기 한국어 성서의 번역어 연구—「마가복음」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2005.
- 오성종, “Pneuma와 Psyche: 인간론적 용어에 대한 개념사적 및 주석적 연구”, 『한국복음주의 신약학연구』 4 (2005), 154-192.
- 오성종, “신약에서의 ‘이성적 사고력’: Nous와 Noēma”, 『개혁논총』 10(2009), 355-379.
- Aland, Kurt, hrsg., *Vollständige Konkordanz zum griechischen Neuen Testament*, Bd. II: Spezialübersichten, Berlin: Walter de Gruyter, 1978.
- Albertz, R. & Westermann, C., “רוח Geist”, E. Jenni, hrsg., *THAT 2*, Zürich: Theologischer Verlag, 1976, 726-753.
- Alford, H., *The Greek Testament*, Vol. III, Grand Rapids: Guardian Press, 1976.
- Aune, David E., *Revelation 17-22.*, WBC 52C, Waco: Word, 1998.
- Barnett, P., *The Second Epistle to the Corinthians*, NICNT, Grand Rapids: Eerdmans, 1997.
- Barrett, C. K., *The Gospel according to John*, 2nd ed., Philadelphia: Westminster, 1978.
- Bauckham, R. J., *Jude, 2 Peter*, WBC 50, Waco: Word, 1983.
- Bauer, W., Danker, F. W., Arndt, W. F., and Gingrich, F. W., *A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and Other Early Christian Literature*, rev. ed., Frederick William Danker,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0. (= BDAG)
- Baumgärtel, F., “πνεῦμα κτλ.”, Gerhard Kittel, hrsg., *ThWNT 6*, Stuttgart: W. Kohlhammer Verlag, 1959, 357-366.
- Beale, G. K., *A New Testament Biblical Theology: The Unfolding of the Old Testament in the New*,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11.
- Behm, J., “νοέω κτλ.”, Gerhard Kittel, hrsg., *ThWNT 5*, Stuttgart: W. Kohlhammer Verlag, 1961, 947-1004.

- Berkhof, L., *Systematic Theology*, Grand Rapids: Eerdmans, 1976.
- Blomberg, C. L. and Kamell, M. J., *James*, ZECNT, Grand Rapids: Zondervan, 2008.
- Bock, Darrell L., *Luke 9:51-24:53*, BECNT. Grand Rapids: Baker Academic, 1996.
- Brown, R. E., *The Gospel according to John, i-xii & xiii-xxi*, N.Y.: Doubleday, 1970.
- Bultmann, R., *Theologie des Neuen Testaments*, Tübingen: Mohr, 1984.
- Calvin, J., *The Epistles of Paul The Apostle to the Galatians, Ephesians, Philippians and Colossians*, Grand Rapids: Eerdmans, 1974.
- Carson, D. A., *The Gospel according to John*, Grand Rapids: Eerdmans, 1991.
- Chamblin, J. K., "Psychology", R. P. Martin et al., eds., *Dictionary of Paul and His Letters*, Downers Grove: IVP, 1993, 765-775.
- Conzelmann, H., *Grundriss der Theologie des Neuen Testaments*, München: Chr. Kaiser, 1976.
- Keener, C. S., *The Gospel of John: A Commentary*, Peabody: Hendrickson, 2003.
- Dauids, P., *Commentary on James*, NIGTC, Grand Rapids: Eerdmans, 1983.
- DeSilva, D. A., *The Letter to the Galatians*, NICNT, Grand Rapids: Eerdmans, 2018.
- Dihle, A., "ψυχή κτλ.", Gerhard Kittel, hrsg., *ThWNT* 9, Stuttgart: W. Kohlhammer Verlag, 1979, 604-614.
- Dihle, A., "ψυχικός κτλ.", Gerhard Kittel, hrsg., *ThWNT* 9, Stuttgart: W. Kohlhammer Verlag, 1979, 661.
- Dunn, J. D. G., *Romans 1-8*, WBC 38A, Dallas: Word Books, 1988.
- Erickson, M., *Christian Theology*, Grand Rapids: Baker, 2002.
- Fee, G. D., *God's Empowering Presence: The Holy Spirit in the Letters of Paul*, Peabody: Hendrickson, 1994.
- Fee, G. D., *The First and Second Letters to the Thessalonians*, NICNT, Grand Rapids: Eerdmans, 2009.
- Fee, G. D., *The First Epistle to the Corinthians*, NICNT, rev. ed., Grand Rapids: Eerdmans, 2014.
- Fitzmyer, Joseph A., *Romans*, AB 33, N.Y.: Doubleday, 1993.
- France, R. T., *The Gospel of Matthew*, NICNT, Grand Rapids: Eerdmans, 2007.
- Gaffin Jr., R. B., *Perspectives on Pentecost: New Testament Teaching on the Gifts of the Holy Spirit*, Philadelphia: P&R, 1979.
- Gnilka, J., *Das Evangelium nach Markus (Mk 8,27-16,20)*, EKK II:2, Köln: Benziger, 1979.

- Grosheide, F. W., *Commentary on the First Epistle to the Corinthians*, NICNT, Grand Rapids: Eerdmans, 1984.
- Guelich, R. A., *The Sermon on the Mount: A Foundation for Understanding*, Waco: Word Books, 1982.
- Hagner, D. A., *Matthew 1-13*, WBC 33A, Waco: Word Books, 1995.
- Hatch, E. and Redpath, H. A., eds., *A Concordance to the Septuagint*, Vol. II. Graz: Akademisches Druck- u. Verlagsanstalt, 1975.
- Hoekema, A. A., 『개혁신주의 인간론』, 류호준 역, 서울: CLC, 1990.
- Hughes, P. E., *The Second Epistle to the Corinthians*, NICNT, Grand Rapids: Eerdmans, 1982.
- Jacob, E., “ψυχή κτλ.”, Gerhard Kittel, hrsg., *ThWNT* 9, Stuttgart: W. Kohlhammer Verlag, 1979, 614-629.
- Jewett, Robert, *Romans*, HCHCB, Minneapolis: Fortress, 2007.
- JPS Hebrew-English TANAKH*, 2nd ed., Philadelphia: JPS, 2003.
- Köstenberger, A. J., *A Theology of John's Gospel and Letters*, Grand Rapids: Zondervan, 2009.
- Ladd, G. E., 『신약신학』, 신성종, 이한수 역, 개정증보판,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2001.
- Liddell, H. G. et al., eds., *A Greek-English Lexicon*, Oxford: At the Clarendon, 1983. (= LSJM)
- Longenecker, R. N., *Galatians*, WBC 41, Dallas: Word Books, 1990.
- Longenecker, R. N., *The Epistle to the Romans*, NIGTC, Grand Rapids: Eerdmans, 2016.
- Marshall, I. H., *The Pastoral Epistles*, Edinburgh: T&T Clark, 1999.
- Moloney, F. J., *The Gospel of John*, SPS 4, Collegeville: Liturgical Press, 1998.
- Mounce, R. H., *The Book of Revelation*, Grand Rapids: Eerdmans, 1997.
- Mounce, W. D., *Pastoral Epistles*, WBC 46, Dallas: Word, 2000.
- Painter, John, *1, 2, and 3 John*, SPS 18, Collegeville: Liturgical Press, 2002.
- Ryken, L., *Understanding English Bible Translation: The Case for an Essentially Literal Approach*, Wheaton: Crossway, 2009.
- Schweizer, E., “ψυχή κτλ.”, Gerhard Kittel, hrsg., *ThWNT* 9, Stuttgart: W. Kohlhammer Verlag, 1979, 635-657.
- Schweizer, E., “πνεῦμα κτλ.”, Gerhard Kittel, hrsg., *ThWNT* 6, Stuttgart: W. Kohlhammer Verlag, 1959, 387-453.
- Sjöberg, E., “πνεῦμα κτλ.”, Gerhard Kittel, hrsg., *ThWNT* 6, Stuttgart: W. Kohlhammer Verlag, 1959, 373-387.

- Stacey, W. D., *The Pauline View of Man*, London: Macmillan, 1956.
- Stein, R. H., *Mark*, BECNT,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8.
- Strecker, G., *Theology of the Neuen Testament*, E. E. Boring, trans., Berlin: de Gruyter, 2000.
- Strong, A. H., *Systematic Theology*, Philadelphia: Judson, 1979.
- Stuhlmacher, P., *Der Brief an Philemon*, EKK XVIII, Zürich: Benziger, 1975.
- Thiselton, A. C., *The First Epistle to the Corinthians*, NIGTC, Grand Rapids: Eerdmans, 2000.
- Werblowsky, R. J. Z. and Wigoder, G., eds., *The Oxford Dictionary of the Jewish Relig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1.
- Westermann, C., “פְּנֵי־סֵעֵלָה Seele”, E. Jenni, hrsg., *THAT* 2, Zürich: Theologischer Verlag, 1976, 71-96.
- Wolff, H. W., *Anthropologie des Alten Testaments*, München: Chr. Kaiser, 1990.

<Abstract>

**A Study on the Consistency Problem of Some Translated Words
in the New Korean Revised Version:
Notes on the Translation of Anthropological Terms and
Pneuma Meaning the Holy Spirit**

Sung Jong Oh
(Formerly Prof. of Calvin University)

This paper is an attempt to confirm that the same anthropological terms in the original text were translated inconsistently in the New Korean Revised Version, and to suggest that they be translated consistently into more appropriate Korean words. 신약전서 (1906/1911), the first authorized New Testament was influenced by the Chinese Wen-li Version (Delegates' Version). 신약전서 has undergone several revisions, and finally, the NKRV (NT) was published in 1998 after a major revision. The NKRV (NT) seeks the principle of an essentially literal translation (like NRSV and ESV) so as to get an effect of reading the original text in Bible study and for preparation of sermons. Unfortunately, there, however, is a weakness due to anthropological words that are inconsistently translated into various words. This is because it failed to correct the influences of the Wen-li Version and the early Korean versions. We expect this to be confirmed when we compare the translated words in the relevant passages of NKRV with those of Wen-li, NRS, ESV, and LUT.

There may be semantic overlap between anthropological terms in some cases. However, the Greek words καρδία, πνεῦμα, ψυχή, and νοῦς/νόημα in general have their own meanings. Accordingly, they were respectively translated as *heart*, *spirit*, *soul*, and *mind* in a uniform manner in the English Bibles. But in the NKRV (NT), καρδία is translated as 마음 (in sense of *heart*), but πνεῦμα, ψυχή, and νοῦς/νόημα were also translated as 마음 in about four dozen cases. These three Greek anthropological words could be best translated consistently into Korean as 영 (spirit), 영혼 (soul), and 정신 (mind) respectively.

In the case of *pneuma* (πνεῦμα), which is used alone in sense of the Holy Spirit, there are several examples of it being translated into *spirit* in NKRV (NT), which could lead to misunderstanding its meaning as human spirit. In this case, I think it would be best to translate it as ‘the Holy Spirit’ uniformly.